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스겔 | Ezekiel 24:16-19

말씀 FOCUS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이는 첫사랑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게 하려는 표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더 큰 사랑의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리마인드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UNDERSTAND

▶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

- *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눅 22:44, 사 53:5, 베전 3:18, 히 7:25, 계 22:7, 계 6:16)

- 예수님의 쓴잔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예수님의 묶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예수님의 침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APPLY & SHARE

1.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도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나에게 소중한 것(시간, 관계, 취미, 계획 등)이나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던 특별한 순간이 있나요? (예: 용서받은 경험, 위로받은 순간, 새 힘을 얻은 때 등)
3.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나요?